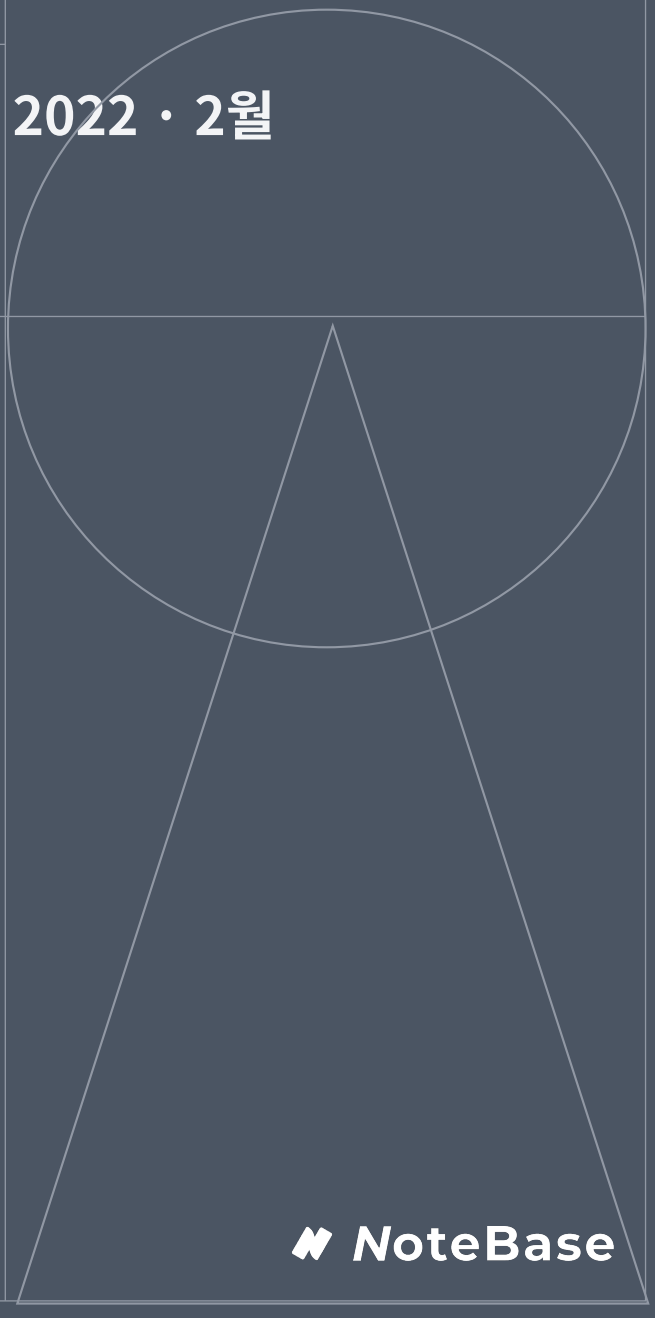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9급 · 국어 · 2022 · 2월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9급 · 국어 · 2022 · 2월

공무원/서울시/9급 · 국어 · 2022 · 2월

문 1. 밑줄 친 부분의 문장 성분이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①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라.

② 호랑이도 제 말 하면 온다.

③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④ 꿀도 약이라면 쓰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말은'은 '해라'라는 동작의 대상이므로 **목적어**이다. 여기서 '은'은 보조사이므로, '은'이 붙었다는 이유만으로 주어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주어는 서술어가 나타내는 동작이나 상태·성질의 주체이고, 목적어는 동작의 대상이다. 보조사 '은'과 '도'는 특정 문장 성분만을 나타내지 않으므로 서술어와의 관계를 살펴야 한다.

① '말은' — 목적어: '말을 바로 해라'로 바꾸어 보면, '말'은 '해라'라는 **동작의 대상**이다. 목적격 조사 '을' 대신 보조사 '은'이 붙었지만 목적어의 기능은 그대로이다.

② '호랑이도' — 주어: '온다'라는 **동작의 주체**가 호랑이이다. '호랑이가 온다'처럼 주격 조사 '가'를 붙여도 같은 주어·서술어 관계가 성립한다. '도'는 여기에 의미를 더하는 보조사이다.

③ '연기' — 주어: '나다'라는 **현상의 주체**가 연기이다. '연기가 날까?'에서 주격 조사 '가'가 생략된 형태이므로, 조사가 없어도 주어이다.

④ '꿀도' — 주어: '쓰다'라는 **성질의 주체**가 꿀이다. '꿀이 쓰다'에서와 같은 주어·서술어 관계이며, 보조사 '도'가 붙어 있다.

①의 '말은'만 목적어이고, ②의 '호랑이도', ③의 '연기', ④의 '꿀도'는 모두 주어이므로 ①의 문장 성분이 나머지 셋과 다르다.

NoteBase

문 2. <보기>에서 밑줄 친 설명과 같은 문법 범주에 속하는 문장은?

<보기>
(가) 온난화로 북극 빙하가 다 녹는다.
(나) 온난화가 북극 빙하를 다 녹인다.

‘온난화’라는 사태와 ‘북극 빙하가 녹는 사태’ 간에는 의미적으로 인과 관계가 성립하는데, (가)에서는 이 인과 관계를 드러내는 표지로 부사격조사 ‘로’가 쓰였다. (나)는 ‘녹이다’라는 사동사를 사용한 문장이다. 주동문일 때 부사어 위치에 있던 ‘온난화’가 사동문에서는 주어 자리를 차지함으로써 ‘온난화’라는 현상이 ‘북극 빙하’라는 대상이 ‘녹도록’ 힘을 가하는 의미로 읽힌다. 이로써 ‘북극 빙하가 녹는 사태’에 대하여 ‘온난화’가 온전히 책임을 져야 할 것처럼 보인다.

① 회사는 이것이 전파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고 우긴다.
② 사장이 사장실을 넓히기 위해 직원 회의실을 좁힌다.
③ 온갖 공장에서 폐수를 정화하지도 않고 강에 버린다.
④ 이산화탄소가 적외선을 흡수하여 열이 대기에 모인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좁힌다'는 '좁다'에 사동 접미사 '-히-'가 붙어 **좁게 만든다**는 뜻을 나타낸다. 사장이 회의실을 좁게 만드는 것이므로, '녹다'를 '녹이다'로 바꾼 <보기>와 같은 사동 표현이다.

NoteBase

공통 해설

사동은 주어가 다른 대상에게 어떤 행동을 하게 하거나 어떤 상태가 되게 하는 표현이다. <보기>의 '녹이다'는 '녹다'의 어간 '녹-'에 사동 접미사 '-이-'가 붙은 사동사로, 온난화가 빙하를 녹게 한다는 뜻이다. 이처럼 **어간에 사동 접미사가 결합하여 대상의 행동이나 상태를 유발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사장이 사장실을 넓히기 위해 직원 회의실을 좁힌다'에서 '좁히다'는 '좁-'에 사동 접미사 '-히-'가 붙은 말이다. '회의실이 좁다'라는 상태를 사장이 만들어 낸다는 뜻이며, 상태의 대상인 '회의실'은 목적어로, 그 상태를 만드는 '사장'은 주어로 나타난다. '넓히다'도 '넓-'에 '-히-'가 붙어 사장실을 넓게 만든다는 뜻을 나타내므로, 이 문장은 <보기>처럼 사동사를 사용한 문장이다.

반면 '우긴다'와 '버린다'는 각각 '우기다'와 '버리다'의 활용형으로, 사동 접미사가 붙어 만들어진 말이 아니다. '기'나 '리'라는 음절이 들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동사로 볼 수 없다. '열이 대기에 모인다'의 '모이다'는 '모으다'의 **피동사**이다. 열이 다른 대상을 모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열 자체가 모이는 대상이므로, 사동사를 사용한 표현과 구별된다.

NoteBase

문 3. 밑줄 친 단어의 품사가 다른 것은?

① 이야기를 들어 보다.
② 일을 하다가 보면 요령이 생겨서 작업 속도가 빨라진다.
③ 이런 일을 당해 보지 않은 사람은 내 심정을 모른다.
④ 식구들이 모두 집에 돌아왔나 보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④의 '돌아왔나 보다'는 식구들이 돌아왔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뜻으로, 이때의 '보다'는 **보조 형용사**이다.

선지별 해설

보조 용언은 본용언 뒤에서 그 뜻을 보충하며, 보조 동사와 보조 형용사로 나뉜다. 여기서는 각 문장에서 '보다'가 더하는 의미와 그에 따른 품사를 비교한다.

① 보조 동사: '들어 보다'는 이야기를 **시험 삼아 듣는다**는 뜻이다. '보다'가 '듣다' 뒤에서 시도의 의미를 더한다.

② 보조 동사: '하다가 보면'은 **일을 하는 과정에서** 요령이 생기고 작업 속도가 빨라지는 상태에 이르게 됨을 나타낸다. 이처럼 동사 뒤의 '-다(가) 보면' 구성에서 과정 중의 변화나 깨달음을 나타내는 '보다'는 보조 동사이다.

③ 보조 동사: '당해 보지 않은'은 그런 일을 **겪은 경험이 없다**는 뜻이다. '보다'가 '당하다' 뒤에서 경험의 의미를 더한다.

④ 보조 형용사: '돌아왔나 보다'는 식구들이 모두 집에 돌아왔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뜻이다. '-나 보다' 구성에서 앞말의 행동이나 상태를 추측하는 '보다'는 보조 형용사이다. 앞말 '돌아오다'가 동사라는 이유로 뒤의 '보다'도 보조 동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①~③의 '보다'는 보조 동사이고, ④의 '보다'만 보조 형용사이므로 품사가 다르다.

NoteBase

문 4. 가장 자연스러운 문장은?

① 지금부터 회장님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② 당신이 가리키는 곳은 시청으로 보입니다.

③ 푸른 산과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으로 가자!

④ 이런 곳에서 생활한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았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가리키다'는 **대상이나 방향을 짚어 보이다**라는 뜻으로, 장소를 나타내는 '곳'과 자연스럽게 어울린다. 지목한 장소가 시청으로 보인다는 문장이므로 의미와 문장 성분의 호응에 문제가 없다.

선지별 해설

① X: 문장의 주어는 '회장님'이 아니라 '말씀'이므로, 사람을 직접 높이는 '계시다'를 쓰는 것은 부자연스럽다. '지금부터 회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로 고친다. 회장님과 관련된 '말씀'을 통해 회장님을 간접적으로 높이는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도 쓸 수 있다.

② O: '가리키다'는 손가락 등으로 어떤 대상이나 방향을 짚어 보인다는 뜻이다. '당신이 가리키는 곳'은 상대방이 지목한 장소를 나타내며, 그곳이 **'시청으로 보인다'는 서술과 자연스럽게 호응**한다.

③ X: '푸른 산과 맑은 물'이 함께 '흐르는'의 주어가 되어 **산도 흐른다는 뜻**이 되므로 호응이 부자연스럽다. '푸른 산이 있고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으로 가자!'처럼 '산'에 알맞은 서술어를 보충한다.

④ X: '믿겨지다'는 피동사 '믿기다'에 다시 '-어지다'를 붙인 **이중 피동 표현**이다. 피동 표현을 겹쳐 쓰지 않도록 '이런 곳에서 생활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또는 '이런 곳에서 생활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로 고친다.

NoteBase

문 5. 띄어쓰기가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이 ∨ 일도 ∨ 이제는 ∨ 할 ∨ 만하다.

② 나는 ∨ 하고 ∨ 싶은 ∨ 대로 ∨ 할 ∨ 테야.

③ 다음부터는 ∨ 일이 ∨ 잘될 ∨ 듯 ∨ 싶었다.

④ 그녀는 ∨ 그 ∨ 사실에 ∨ 대해 ∨ 아는 ∨ 체를 ∨ 하였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듯싶다'는 추측을 나타내는 하나의 보조 형용사이므로 '듯'과 '싶다'를 띄지 않는다. '잘될 듯 싶었다'는 **'잘될 듯싶었다'**로 고쳐 쓴다.

선지별 해설

① O: '만하다'는 앞말의 행동이 가능함을 나타내는 보조 형용사이다. 보조 용언은 앞말과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므로 **'할 만하다'**로 쓴다. 이 구성에서는 '할만하다'처럼 붙여 쓰는 것도 허용된다.

② O: '-고 싶다' 구성의 보조 형용사 '싶다'는 앞말과 띄어 써야 하므로 '하고 싶은'으로 쓴다. '대로'는 관형어 '하고 싶은' 뒤에 쓰인 **의존 명사**이므로 '싶은 대로'로 띄어 쓴다. '테야'는 의존 명사 '터'가 들어 있는 '터이야'가 줄어든 말이므로 '할 테야'로 띄어 쓴다.

③ X: '듯싶다'는 앞말의 사건이나 상태를 짐작하거나 추측함을 나타내는 하나의 보조 형용사이다. 따라서 '듯 싶었다'처럼 나누지 않고 **'듯싶었다'**로 붙여 쓰며, 앞말과는 띄어 '잘될 듯싶었다'로 쓴다. '잘되다'는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는 뜻의 한 단어이므로, 문장 전체는 '다음부터는 일이 잘될 듯싶었다.'로 고친다.

④ O: '체'는 그럴듯하게 꾸미는 거짓 태도나 모양을 뜻하는 의존 명사이다. 의존 명사는 앞말과 띄어 쓰고 조사는 앞말에 붙이므로 **'아는 체를'**로 쓴다. 뒤의 '하였다'는 별개의 용언이므로 '체를 하였다'로 띄어 쓴다.

NoteBase

문 6. <보기>의 ㉠을 포함하고 있는 안은문장은?

<보기>
관형사가 문장에 쓰이면 관형어로 기능한다. 그래서 관형사는 항상 관형어로 쓰인다. 즉 관형사는 문장에서 관형어로서 체언을 수식한다. 그런데 관형사만 관형어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관형사절이 관형어로 쓰이기도 한다. 즉 관형사절이 체언을 수식한다.

① 그는 갖은 양념으로 맛을 내었다.
② 꽃밭에는 예쁜 꽃이 활짝 피었다.
③ 오랜 가뭄 끝에 비가 내렸다.
④ 사무실 밖에서 여남은 명이 웅성대고 있었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예쁜'은 형용사 '예쁘다'가 활용한 말로, **'꽃이 예쁘다'라는 주어·서술어 관계**를 바탕으로 '꽃'을 꾸민다. 따라서 단순한 관형사가 아니라 관형사절이 쓰인 경우이다.

공통 해설

관형어는 체언을 꾸미는 문장 성분이다. 관형사 한 단어가 관형어로 쓰일 수도 있고, 주어·서술어 관계를 갖춘 절이 관형어로 쓰일 수도 있다. 이때 체언을 꾸미는 절을 관형사절이라 하며, 이를 포함한 전체 문장을 관형사절을 안은문장이라고 한다. 관형사절의 주어는 꾸밈을 받는 체언과 겹치면 생략될 수 있다.

'예쁜 꽃'의 '예쁜'은 형용사 '예쁘다'의 어간 '예쁘-'에 관형사형 어미 '-ㄴ'이 결합한 형태이다. '꽃이 예쁘다'에서 꾸밈을 받는 '꽃'과 겹치는 주어 '꽃이'가 생략되어, **관형사절 '예쁜'이 '꽃'을 수식**한다. 따라서 '꽃밭에는 예쁜 꽃이 활짝 피었다.'는 관형사절을 안은문장이다.

반면 '갖은 양념', '오랜 가뭄', '여남은 명'의 '갖은', '오랜', '여남은'은 모두 **활용하지 않는 관형사**이다. 각각 '양념', '가뭄', '명'을 꾸미지만, 용언이 활용하여 이루어진 절은 아니다. 이들은 관형어로 쓰였다는 점에서는 '예쁜'과 같지만, 관형사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NoteBase

문 7. <보기>에서 말하고 있는 생물 진화의 유전적 진화 원리가 아닌 것은?

<보기>
문화의 진화도 역시 생물의 진화에 비유해서 설명할 수 있다. 문화변동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일어난다. 첫째, 생물진화의 돌연변이처럼 그 문화체계 안에서 새로운 문화요소의 발명 또는 발견이 있어 존재하는 문화에 추가됨으로써 일어난다. 둘째, 유전자의 이동처럼 서로 다른 두 문화가 접촉함으로써 한 문화에서 다른 문화로 어떤 문화요소의 전파가 생길 때 그 문화요소를 받아들인 사회의 문화에 변화가 일어난다. 셋째, 유전자 제거처럼 어떤 문화요소가 그 사회의 환경에 부적합할 때 그 문화요소를 버리고 더 적합한 다른 문화요소로 대치시킬 때 문화변동을 일으킨다. 넷째, 유전자 유실처럼 어떤 문화요소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달될 때 잘못되어 그 문화요소가 후세에 전해지지 못하고 단절되거나 소멸될 때 문화변동이 일어난다. 그러나 생물 유기체의 진화원리를 너무 지나치게 문화의 진화에 그대로 비유해서는 안 된다. 문화는 유기체의 진화와 유사하지만 초유기체이기 때문에 생식과정에 의한 유전과는 다른 학습과 모방에 의해 진화되기 때문이다.

① 돌연변이
② 유전자 유실
③ 유전자 제거
④ 적자생존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적자생존'은 **보기에서 진화 원리로 제시되지 않았다**. 환경에 부적합한 문화요소를 버리는 과정은 보기에서 '유전자 제거'에 비유했다.

공통 해설

이 문항의 판단 기준은 생물 진화에 관한 일반 지식이 아니라 **보기에서 직접 제시한 원리인지**이다. 보기에는 첫째 '돌연변이', 둘째 '유전자의 이동', 셋째 '유전자 제거', 넷째 '유전자 유실'이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돌연변이', '유전자 유실', '유전자 제거'는 모두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적자생존'은 보기에서 별도의 진화 원리로 제시되지 않았다. 셋째 설명에 환경에 부적합한 문화요소를 버리고 더 적합한 것으로 대치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글은 이를 **'유전자 제거'에 비유**하고 있다. 환경에 적합하다는 표현만으로 '적자생존'까지 제시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NoteBase

문 8. 밑줄 친 부분의 한자 표기가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이 책에는 이론이 체계적(體系的)으로 잘 정립되어 있다.

② 신문에서 사건의 진상에 대해 자세히 보고(報誥)를 했다.

③ 그는 이미지 제고(提高)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④ 그 분야 전문가이기 때문에 유명세(有名稅)를 치를 수밖에 없었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사건의 내용이나 결과를 알리는 '보고'는 **報告**로 쓴다. '알릴 고'인 告를 써야 하므로 '報誥'는 잘못된 표기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체계적(體系的)'은 일정한 원리에 따라 짜임새 있게 조직된 것을 뜻한다. 이론이 질서 있게 정립되어 있다는 문맥이므로 **體系的**으로 쓴다.

② X: '보고'는 일의 내용이나 결과를 알리는 것으로, **報告**로 쓴다. 報는 '갚을 보', 告는 '알릴 고'이므로 '報誥'의 誥를 告로 고쳐야 한다.

③ O: '제고(提高)'는 수준이나 정도를 끌어올리는 것을 뜻한다. 提는 '끌 제', 高는 '높을 고'이므로 이미지를 높인다는 문맥에 **提高**가 알맞다.

④ O: '유명세(有名稅)'는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겪는 불편이나 곤욕을 세금에 빗대어 이르는 말이다. 有는 '있을 유', 名은 '이름 명', 稅는 '세금 세'이므로 **有名稅**로 쓴다.

NoteBase

문 9. <보기>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보기>
독일어식이나 일본어식으로 사용해오던 화학 용어가 국제기준에 맞는 표기법으로 바뀐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주요 원소 이름 109종과 화합물 용어 325종의 새 표기법을 KS규격으로 제정, 다음 달 6일 고시해 시행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새 표기법은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발음에 가깝게 정해진 것으로, '요오드'는 '아이오딘', '게르마늄'은 '저마늄' 등으로 바뀐다. 화합물 용어도 구성 원소 이름이 드러나도록 '중크롬산칼륨'을 '다이크로뮴산칼륨'으로 표기한다.

예외적으로 '나트륨'과 '칼륨'은 갑작스러운 표기 변경에 따른 혼란을 피하기 위해 지금까지 사용한 대로 표기를 허용하되 새 이름 '소듐', '포타슘'도 병행해 사용토록 했다. 또 '비타민'도 당분간 '바이타민'을 병행 표기한다.
- 2005.03.30.자 ○○신문

① '요오드'가 '아이오딘'보다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발음에 가깝다.

② '저마늄'은 화합물의 구성 원소 이름을 드러낸 표기이다.

③ '나트륨'보다는 '소듐'이 국제기준에 맞는 표기법이다.

④ '비타민'이라는 용어는 KS규격에 맞지 않으므로 쓰지 않아야 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소듐'은 국제기준에 맞춘 새 이름이고, '나트륨'은 표기 변경에 따른 혼란을 피하려고 **예외적으로 병행 사용을 허용한 이름**이다. 기존 이름을 계속 쓸 수 있다는 것이 새 이름의 제정 취지를 바꾸지는 않는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둘째 문단은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발음에 가깝게 정한 새 표기법에 따라 '요오드'를 '아이오딘'으로 바꾼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발음에 더 가까운 것은 **'아이오딘'**이다.

② X: '게르마늄'을 '저마늄'으로 바꾼 것은 **원소 이름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발음에 맞춘 사례**이다. 화합물의 구성 원소 이름을 드러낸 표기의 사례는 이어지는 '중크롬산칼륨'에서 '다이크로뮴산칼륨'으로의 변경이다. 선지는 서로 다른 두 표기 변경의 취지를 혼동했다.

③ O: 첫째 문단은 기존 화학 용어를 국제기준에 맞는 표기법으로 바꾼다고 설명하고, 셋째 문단은 '소듐'을 '나트륨'의 새 이름으로 제시한다. 따라서 '소듐'이 국제기준에 맞춘 표기라는 설명은 글의 내용과 일치한다. '나트륨'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갑작스러운 변경에 따른 혼란을 피하기 위한 예외**이다.

④ X: 셋째 문단은 '비타민'도 당분간 '바이타민'과 **병행 표기**한다고 설명한다. 이는 두 표기를 함께 쓸 수 있다는 뜻이므로, '비타민'을 쓰지 않아야 한다는 판단은 글의 내용과 다르다.

NoteBase

문 10.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사용된 표현법과 가장 유사한 것은?

<보기>
순이, 벌레 우는 고풍한 뜰에
달빛이 밀물처럼 밀려왔구나.

달은 나의 뜰에 고요히 앉아 있다.
달은 과일보다 향그럽다.

동해 바다 물처럼
푸른
가을
밤

포도는 달빛이 스며 고웁다.
포도는 달빛을 머금고 익는다.

① 풀은 눕고 / 드디어 울었다
②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③ 구름은 / 보랏빛 색지 위에 / 마구 칠한 한 다발 장미
④ 아! 강낭콩꽃보다도 더 푸른 / 그 물결 위에 / 양귀비 꽃보다도 더 붉은 / 그 마음 흘러라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달이 '앉아 있다'고 한 것과 풀이 '울었다'고 한 것은 모두 비인간 대상을 사람처럼 표현한 **의인법**이다. 달에는 사람의 행위를, 풀에는 사람의 감정과 행위를 부여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밑줄 친 '달은 나의 뜰에 고요히 앉아 있다.'는 달을 사람처럼 앉아 있는 존재로 표현한 의인법이다. 의인법은 사람이 아닌 대상에 인간의 성질·감정·행위를 부여하는 표현법이므로, 각 선지에서도 이러한 특징이 나타나는지 살펴본다.

① 풀에 **'울었다'라는 인간의 감정과 행위**를 부여했다. 풀이 실제로 눈물을 흘리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처럼 우는 존재로 표현했으므로, 달이 앉아 있다고 한 것과 같은 의인법이다.

②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는 답을 요구하는 질문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도 외로움을 안다**는 뜻을 강조하는 설의법이다. 사람이 아닌 대상을 사람처럼 표현한 것은 아니다.

③ 구름을 '한 다발 장미'라고 표현했다. 두 대상의 시각적 유사성을 바탕으로 **구름을 장미에 빗댄 은유법**이며, 구름에 인간의 성질이나 행위를 부여한 의인법과는 다르다.

④ 물결의 푸름을 강낭콩꽃과, 마음의 붉음을 양귀비꽃과 **'보다도 더'라는 표현으로 비교**한다. '아!'에서는 감탄을 드러내는 영탄적 어조도 나타난다. 이러한 색채의 비교와 감탄은 달을 앉아 있는 사람처럼 표현한 방식과 다르다.

밑줄 친 부분과 ①은 모두 비인간 대상에 인간의 행위나 감정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표현법이 가장 유사하다.

NoteBase

문 11. <보기>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을 명제라고 한다. 문장이 나타내는 명제가 실제 세계의 사실과 일치하면 참이고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다. 가령, '사과는 과일이다.'는 실제 세계의 사실과 일치하므로 참인 명제지만 '새는 무생물이다.'는 실제 세계의 사실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거짓인 명제이다. 이와 같이 명제가 지닌 진리치가 무엇인지 밝혀 주는 조건을 진리 조건이라고 한다. 명제 논리의 진리 조건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모든 명제는 참이든지 거짓이든지 둘 중 하나여야 하며 참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거나 참이면서 거짓인 경우는 없다. 명제 P가 참이면 그 부정 명제 ~P는 거짓이고 ~P가 참이면 P는 거짓이다. 명제 P와 Q가 AND로 연결되는 P∧Q는 P와 Q가 모두 참일 때에만 참이다. 명제 P와 Q가 OR로 연결되는 P∨Q는 P와 Q 둘 중 적어도 하나가 참이기만 하면 참이 된다. 명제 P와 Q가 IF … THEN으로 연결되는 P→Q는 P가 참이고 Q가 거짓이면 거짓이고 나머지 경우에는 모두 참이 된다.

① 명제 논리에서 '모기는 생물이면서 무생물이다.'는 성립하지 않는다.

② 명제 논리에서 '파리가 새라면 지구는 둥글다.'는 거짓이다.

③ 명제 논리에서 '개가 동물이거나 컴퓨터가 동물이다.'는 참이다.

④ 명제 논리에서 '늑대는 새가 아니고 파리는 곤충이다.'는 참이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파리가 새라면 지구는 둥글다.'에서 '파리는 새이다'는 거짓이고 '지구는 둥글다'는 참이다. 조건 명제는 **앞부분이 참이고 뒷부분이 거짓일 때만 거짓**이므로, 이 명제는 거짓이 아니라 참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모기는 생물이다'는 참이고 '모기는 무생물이다'는 거짓이다. '이면서'로 연결된 명제는 **두 명제가 모두 참일 때만 참**이므로, '모기는 생물이면서 무생물이다'는 거짓이다. 따라서 이 명제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② X: '파리가 새라면'은 조건 명제의 앞부분이고 '지구는 둥글다'는 뒷부분이다. 앞부분인 '파리는 새이다'는 거짓이고 뒷부분인 '지구는 둥글다'는 참이다. 조건 명제는 **앞부분이 참이고 뒷부분이 거짓인 경우에만 거짓**이며 나머지 경우에는 참이다. 따라서 선지의 '거짓이다'를 '참이다'로 고쳐야 한다.

③ O: '개는 동물이다'는 참이고 '컴퓨터는 동물이다'는 거짓이다. '이거나'로 연결된 명제는 **둘 중 적어도 하나가 참이면 참**이므로, 한쪽이 거짓이어도 전체 명제는 참이다.

④ O: '늑대는 새이다'는 거짓이므로 그 부정인 '늑대는 새가 아니다'는 참이다. '파리는 곤충이다'도 참이다. '아니고'는 여기서 앞 명제의 부정과 두 명제의 연결을 나타내므로, **참인 두 명제가 '그리고'로 연결**된 전체 명제는 참이다.

NoteBase

문 12. <보기>의 밑줄 친 부분과 표현 방식이 가장 유사한 것은?

<보기>
동짓달 기나긴 밤 한 허리를 베어내어
봄바람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사랑하는 임 오신 날 밤이거든 구비구비 펴리라

① 아아 님은 갔지마는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② 무사(無事) 한세상이병원이고꼭치료를기다리는무병(無病)이곳곳에있다
③ 노란 해바라기는 늘 태양같이 태양같이 하던 화려한 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라.
④ 내 마음 속 우리 님의 고운 눈썹을 / 즈믄 밤의 꿈으로 맑게 씻어서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기나긴 밤'을 베어 낼 수 있는 물건처럼 표현한 것은 **추상적 대상의 구체화**이다. ④도 형체가 없는 '꿈'을 눈썹을 씻는 물처럼 표현하여 같은 방식을 사용한다.

선지별 해설

비교 기준은 추상적인 대상을 만지거나 다룰 수 있는 구체적인 사물처럼 표현했는가이다. <보기>는 시간인 '밤'에 '허리'가 있어 베어 낼 수 있다고 표현한다. 이어지는 '넣었다가', '펴리라'도 밤을 보관하거나 펼칠 수 있는 물건처럼 나타내어, 임과 함께할 시간을 늘리고 싶은 마음을 드러낸다.

① '님은 갔지마는'과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는 겉으로 모순되는 말을 함께 제시한 **역설적 표현**이다. 실제 이별과 마음속에서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태도를 대비한다. 추상적인 대상을 물건처럼 다루는 표현과는 다르다.

② '무사'한 세상을 '병원'이라고 하고, 병이 없다는 뜻의 '무병'이 치료를 기다린다고 하여 **서로 모순되는 의미를 결합**한다. 특히 병이 없는데 치료가 필요하다는 역설이 두드러지며, 시간을 베어 내듯 추상적 대상을 물질로 다루는 방식과는 다르다.

③ 구체적 대상인 '해바라기'를 '나의 사랑'에 빗대고, '태양같이'라는 직유적 표현을 사용한다. 비유가 쓰였다는 점만으로는 <보기>와 같다고 할 수 없다. **추상적 대상을 베거나 씻을 수 있는 물질처럼 표현한 것은 아니다.**

④ '즈믄 밤의 꿈으로 맑게 씻어서'는 형체가 없는 '꿈'을 **눈썹을 씻을 수 있는 물처럼** 표현한다. 추상적 대상에 물질의 성질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밤'을 베어 낼 수 있는 물건처럼 표현한 <보기>와 가장 유사하다.

NoteBase

문 13. <보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기존의 대부분의 일제 시기 근대화 문제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대립적인 두 가지 주장으로 정리될 수 있다. 즉 일제가 조선을 지배하지 않았다면 조선에서는 근대적 변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과, 일제의 조선 지배는 한국 근대화를 압살하였기 때문에 결국 근대는 해방 이후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두 주장 모두 일제의 조선 지배에도 불구하고 조선인들이 주체적으로 대응했던 역사가 탈락되어 있다. 일제 시기의 역사가 한국 역사의 일부가 되기 위해서는 민족 해방 운동 같은 적극적인 항일 운동뿐만 아니라, 지배의 억압 속에서도 치열하게 삶을 영위해 가면서 자기 발전을 도모해 나간 조선인의 역사도 정당하게 평가되지 않으면 안 된다.

① 일제의 조선 지배는 한국에게서 근대화의 기회를 빼앗았다.

② 일제의 지배에 주체적으로 대응한 조선인의 역사도 정당하게 평가되어야 한다.

③ 일제가 조선을 지배하지 않았다면 조선에서는 근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④ 조선인들은 일제하에서도 적극적인 항일 운동으로 역사에 주체적으로 대응해 나갔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글쓴이는 일제의 근대화 기여 여부를 둘러싼 두 주장 모두 조선인의 주체적 대응을 놓쳤다고 지적한다. 항일 운동뿐 아니라 **억압 속에서 삶을 꾸리고 자기 발전을 도모한 조선인의 역사**까지 정당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 중심 주장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일제가 한국의 근대화를 가로막았다는 것은 글 앞부분에 소개된 기존 연구의 한 입장이다. 글쓴이는 이 입장 역시 조선인의 주체적 대응을 빠뜨렸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일제 지배의 부정적 영향만을 강조하기보다 **그 속에서 조선인이 어떻게 대응하고 발전했는지**도 평가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고쳐야 글의 취지에 맞는다.

② O: 글쓴이는 대립하는 두 주장에 공통으로 빠진 것이 조선인들의 주체적 대응이라고 밝힌다. 마지막 문장에서는 적극적인 항일 운동뿐 아니라 억압 속에서 삶을 영위하고 자기 발전을 도모한 역사도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두 측면을 포괄하는 **조선인의 주체적 대응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글 전체의 중심 내용이다.

③ X: 일제 지배가 없었다면 조선의 근대적 변혁이 이루어지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기존 연구의 입장을 옮긴 것이다. 글쓴이가 이를 자신의 결론으로 내세운 것은 아니다. 글의 주장은 일제의 근대화 기여를 인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기존 두 주장이 놓친 조선인의 주체성을 평가하자**는 것이다.

④ X: 적극적인 항일 운동이 조선인의 주체적 대응에 해당한다는 내용은 글에 부합한다. 그러나 글쓴이는 항일 운동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삶을 영위하며 자기 발전을 도모한 역사도**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항일 운동만을 제시한 이 선지는 글의 주장을 포괄하지 못하며, 일상적 삶에서 나타난 주체적 대응까지 포함해야 한다.

NoteBase

문 14. 어문 규범에 맞게 표기한 것은?

① 제작년까지만 해도 겨울이 그렇게 춥지 않았지요.

② 범인은 오랫동안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③ 욕구가 억눌린 사람들이 공격성을 띄는 경우가 있습니다.

④ 다른 사람의 진심 어린 충고를 겸허히 받아드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오래'와 '동안'이 결합한 말은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므로 **사이시옷을 받쳐 '오랫동안'**으로 적는다.
시간상으로 긴 동안 범행을 계획했다는 문맥에도 맞는다.

선지별 해설

① X: '작년의 바로 전 해'를 뜻하는 말은 **'재작년'**이다. 따라서 '제작년까지만'을 '재작년까지만'으로 고쳐야 한다.

② O: '오랫동안'은 시간상으로 긴 동안을 뜻한다. '오래'와 '동안'이 결합하면서 뒷말 '동안'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므로 **사이시옷을 받쳐 적고 한 단어로 붙여 쓴다**. 범행을 긴 시간에 걸쳐 계획했다는 뜻에 맞게 쓰였다.

③ X: 빛깔이나 성질 등을 가진다는 뜻의 말은 **'띠다'**이다. 공격적인 성질을 가진다는 의미이므로 '공격성을 띄는'을 '공격성을 띠는'으로 고쳐야 한다. '눈에 띄다'의 '띄다'는 '뜨이다'의 준말로, 눈에 보이거나 두드러진다는 뜻이다.

④ X: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충고를 인정하고 수용한다는 뜻으로는 **'받아들이다'**를 쓴다. 따라서 '충고를 겸허히 받아드리는'을 '충고를 겸허히 받아들이는'으로 고쳐야 한다. 이 문맥은 남에게 무엇을 드린다는 뜻이 아니다.

NoteBase

문 15. 외래어 표기가 올바른 것으로만 묶은 것은?

① 플랭카드, 케익, 스케줄

② 텔레비전, 쵸콜릿, 플래시

③ 커피숍, 리더십, 파마

④ 캐비넷, 로켓, 슈퍼마켓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커피숍'의 **'숍'**과 '리더십'의 **'십'**이 바른 표기이다. '파마'도 이미 굳어진 말의 관용을 인정한 외래어 표기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플랭카드'는 **'플래카드'**로, '케익'은 **'케이크'**로 고쳐야 한다. placard에는 '플랭'처럼 받침 'ㅇ'을 넣지 않는다. cake의 이중 모음은 '에이'로, 끝의 k는 '크'로 적으므로 '케이크'가 된다. '스케줄'은 바른 표기이다.

② X: '쵸콜릿'은 **'초콜릿'**으로 고쳐야 한다. 'ㅊ' 뒤에 'ㅛ'를 쓰지 않고 'ㅗ'를 써서 '초'로 적는다. '텔레비전'과 '플래시'는 바른 표기이다.

③ O: coffee shop은 '커피숍', leadership은 '리더십'으로 적는다. shop은 '숍'으로, leadership의 끝부분인 ship은 '쉽'이 아니라 '십'으로 적는다. '파마'는 **이미 굳어진 관용 표기**를 인정한 말이므로 세 단어 모두 외래어 표기에 맞는다.

④ X: '캐비넷'은 **'캐비닛'**으로 고쳐야 한다. cabinet의 끝부분을 '넷'이 아니라 '닛'으로 적는다. '로켓'과 '슈퍼마켓'은 바른 표기이다.

NoteBase

문 16.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서술자의 의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선불이에요? 근데…… 곱빼기면 오천오백 원 아니에요?
소희가 메뉴판을 가리키며 묻자 여자가 역시 메뉴판을 가리키며 맵게 추가하면 오백 원이라고 말했다. 모든 메뉴 아래에 빨간 고추가 그려져 있고 그 옆에 조그맣게 오백 냥이라고 적혀 있었다.
오백 원이나요?
여자가 앞치마 주머니에서 계산지를 꺼내 표시를 하고는 큰 인심 쓰듯이 말했다.
여기는 매운맛 소스를 안 쓰고 청양고추 유기농으로 맛을 내거든.
청양고추요?
그러니까 다만 오백 원이라도 안 받으면 장사가 안 된다고. 장사가 안 될지 어떨지는 알 수 없지만 육천 원이면 찌개용 돼지고기 한 근을 살 수 있다. 곱빼기도 말고 맵게도 말고 그냥 사천오백 원짜리 짬뽕을 먹을까 하다
소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음에 올게요.
그럼, 그러든지, 하더니 여자는 아니, 그럴 거면 빨리빨리 결정을 져야지, 젊은 사람이 어째 매가리가 없이, 하고는 계산지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다. 계단을 내려오면서 소희는, 매가리가 없이, 매가리가 없이, 하고 중얼거려 보지만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른다.

① 추가 요금을 받지 않으면 장사하기 어려운 현실을 적극적으로 비판하려 했다.
②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사람들로 인해 식당 종업원들이 겪는 고충을 전하려 했다.
③ 짬뽕 한 그릇을 사먹는 것도 망설여야 하는 청년 세대의 가난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려 했다.
④ 소극적인 젊은이들의 의사 표현 방식을 비판하고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도록 독려하려 했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소희는 짬뽕값을 다른 식재료 값과 견주다가 결국 먹지 않고 나온다. 여자의 '매가리가 없이'라는 핀잔은 소희가 망설이는 경제적 사정을 이해하지 못한 말로, **한 끼 식사조차 부담스러운 청년의 가난**을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추가 요금을 받지 않으면 장사가 안 된다는 말은 **식당 여자의 주장**이다. 서술자는 추가 요금 없이 장사하기 어려운 현실을 적극적으로 비판하기보다, 음식값을 부담스러워하다 식사를 포기하는 소희의 처지를 보여 준다.

② X: 계산지를 구겨 버리는 행동에는 손님이 주문을 취소한 데 대한 여자의 짜증이 드러난다. 그러나 앞서 소희가 짬뽕값과 돼지고기 값을 비교하고 더 싼 짬뽕도 먹지 않고 나오는 과정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이 장면의 초점은 종업원의 고충보다 **소희가 결정을 망설일 수밖에 없는 경제적 형편**에 있다.

③ O: 소희는 육천 원이면 찌개용 돼지고기 한 근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천오백 원짜리 짬뽕을 먹을까 하다가 결국 식당을 나온다. 이 과정은 한 그릇의 음식값도 쉽게 지출하기 어려운 형편을 보여 준다. 그런데 여자는 그 사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매가리가 없이'라고 핀잔을 준다. 서술자는 **경제적 곤궁이 기운 없고 우유부단한 태도로만 받아들여지는 상황**을 제시하여 청년 세대의 가난을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④ X: '젊은 사람이 어째 매가리가 없이'는 **여자의 핀잔이지 서술자의 직접적인 평가가 아니다**. 소희가 식사를 포기한 이유는 음식값에 대한 부담으로 제시된다. 따라서 서술자의 의도는 젊은이의 소극적인 의사 표현을 비판하고 적극성을 독려하는 데 있지 않고, 그 태도 뒤의 경제적 어려움을 드러내는 데 있다.

NoteBase

문 17. 어문 규범에 맞는 단어로만 묶은 것은?

① 곰곰이, 간질이다, 닥달하다

② 통채, 발자욱, 구렛나루

③ 귀뜸, 핼쑥하다, 널찍하다

④ 대물림, 구시렁거리다, 느지막하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대를 이어 자손에게 물려주는 일은 **'대물림'**으로 쓴다. 불평하는 말을 자꾸 하는 것은 **'구시렁거리다'**, 시간이 꽤 늦은 것은 **'느지막하다'**가 바른 표기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닥달하다'는 **'닦달하다'**로 고쳐야 한다. 남을 단단히 윽박질러 혼내는 것을 '닦달하다'라고 한다. '곰곰이'는 여러모로 깊이 생각하는 모양을 나타내는 바른 표기이며, 살갗을 건드려 간지럽게 한다는 뜻의 '간질이다'도 표준어이다.

② X: '통채', '발자욱', '구렛나루'는 각각 **'통째', '발자국', '구레나룻'**으로 고쳐야 한다. '통째'는 나누지 않은 덩어리 전부를, '발자국'은 발로 밟은 자리에 남은 모양을 뜻한다. 귀밑에서 턱까지 잇따라 난 수염은 '구레나룻'으로 쓰므로, '구레' 뒤에 사이시옷을 넣거나 마지막 받침 ㅅ을 빼지 않는다.

③ X: '귀뜸'은 **'귀띔'**으로 고쳐야 한다. 상대편이 알아차릴 수 있도록 미리 슬그머니 알려 주는 일을 뜻한다. '핼쑥하다'는 얼굴에 핏기가 없고 파리하다는 뜻의 바른 표기이며, '널찍하다'도 꽤 넓다는 뜻의 바른 표기이다.

④ O: '대물림', '구시렁거리다', '느지막하다'는 모두 어문 규범에 맞는다. '대물림'은 자손에게 넘겨주어 이어 나가는 일로, 대를 잇는다는 뜻이므로 '되물림'으로 쓰지 않는다. '구시렁거리다'는 마음에 들지 않아 듣기 싫은 말을 자꾸 하는 것으로, '궁시렁거리다'로 쓰지 않는다. '느지막하다'는 시간이 꽤 늦다는 뜻으로, **'느즈막하다'가 아니라 '느지막하다'**로 쓴다.

NoteBase

문 18. 같은 의미의 '견'자가 사용된 사자성어를 옳게 짝지은 것은?

① 견마지로 - 견토지쟁

② 견문발검 - 견마지성

③ 견강부회 - 견물생심

④ 견원지간 - 견리사의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견마지로(犬馬之勞)'와 '견토지쟁(犬兎之爭)'의 '견'은 모두 **'개'를 뜻하는 犬**이다. 두 성어 전체의 뜻이 같은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밑줄 친 한자의 뜻이 같은지를 묻는 문제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견마지로(犬馬之勞)는 개나 말 정도의 하찮은 힘이라는 뜻으로, 윗사람에게 충성을 다하는 자신의 노력을 낮추어 이르는 말이다. 견토지쟁(犬兎之爭)은 개와 토끼의 다툼이라는 뜻으로, 둘이 다투는 사이에 제삼자가 이익을 얻는 상황을 이른다. 두 성어의 '견'은 모두 **개 견(犬)**이다.

② X: 견문발검(見蚊拔劍)은 모기를 보고 칼을 뽑는다는 뜻으로, 사소한 일에 지나치게 거창하게 대응함을 비유한다. 여기서 '견'은 **볼 견(見)**이다. 견마지성(犬馬之誠)은 임금이나 나라에 바치는 충성을 낮추어 이르는 말이며, '견'은 **개 견(犬)**이다. 따라서 두 '견'은 뜻이 다르다.

③ X: 견강부회(牽強附會)는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억지로 끌어다 붙여 자기 주장에 맞추는 것을 뜻하며, '견'은 **끌 견(牽)**이다. 견물생심(見物生心)은 물건을 보면 그것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뜻이며, '견'은 **볼 견(見)**이다. 같은 음으로 읽히지만 서로 다른 뜻의 한자이다.

④ X: 견원지간(犬猿之間)은 개와 원숭이의 사이라는 뜻으로, 사이가 매우 나쁜 관계를 비유하며, '견'은 **개 견(犬)**이다. 견리사의(見利思義)는 이익을 보면 의리를 생각한다는 뜻이며, '견'은 **볼 견(見)**이다. 따라서 두 '견'은 뜻이 다르다.

NoteBase

문 19. <보기>의 (가)~(다)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가) 백호 임제가 말에 올라타려 할 때 종이 나서서 말했다. “나리, 취하셨습니다. 한쪽은 짚신을 신으셨네요.” 그러나 백호가 냅다 꾸짖었다. “길 오른쪽을 가는 이는 내가 가죽신을 신었다고 할 테고 길 왼쪽을 가는 이는 내가 짚신을 신었다고 할 게다. 내가 염려할 게 뭐냐.” 이것으로 따져보면 천하에서 발보다 쉽게 눈에 띄는 것이 없지만 보는 방향이 달라짐에 따라서 가죽신을 신었는지도 분간하기 어렵다.

(나) 늙은 살구나무 아래, 작은 집 한 채! 방은 시렁과 책상 따위가 삼분의 일이다. 손님 몇이 이르기라도 하면 무릎이 부딪치는 너무도 협소하고 누추한 집이다. 하지만 주인은 편안하게 독서와 구도(求道)에 열중한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이 작은 방에서 몸을 돌려 앉으면 방위가 바뀌고 명암이 달라지지. 구도란 생각을 바꾸는 데 달린 법, 생각이 바뀌면 그 뒤를 따르지 않을 것이 없지. 자네가 내 말을 믿는다면 자네를 위해 창문을 밀쳐줌세. 웃는 사이에 벌써 밝고 드넓은 공간으로 올라갈 걸세.”

(다) 어항 속 금붕어의 시각은 우리의 시각과 다르지만, 금붕어도 둥근 어항 바깥의 물체들의 운동을 지배하는 과학 법칙들을 정식화(定式化)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힘을 받지 않는 물체의 운동을 우리라면 직선 운동으로 관찰하겠지만, 어항 속 금붕어는 곡선운동으로 관찰할 것이다. 그럼에도 금붕어는 자기 나름의 왜곡된 기준 틀(Frame of Reference)을 토대로 삼아 과학 법칙들을 정식화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법칙들은 항상 성립하면서 금붕어로 하여금 어항 바깥의 물체들의 미래 운동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금붕어가 세운 법칙들은 우리의 틀에서 성립하는 법칙들보다 복잡하겠지만, 복잡함이나 단순함은 취향의 문제이다. 만일 금붕어가 그런 복잡한 이론을 구성했다면, 우리는 그것을 타당한 실재상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① (가)의 임제는 사람들이 주관적 관점에서 대상을 인식한다고 여겼다.
② (나)의 집주인은 객관적 조건과 무관하게 자신만의 방식으로 대상을 수용했다.
③ (다)의 금붕어는 왜곡된 기준 틀로 과학 법칙을 수립할 수 있다.
④ (가), (나), (다)는 주관적 인식의 모순을 분명하게 밝혔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세 글은 대상에 대한 인식이 **관점이나 생각의 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 준다. 특히 (다)는 금붕어의 기준 틀로 세운 이론도 타당할 수 있다고 인정하므로, 세 글 모두가 주관적 인식의 모순을 밝혔다고 볼 수 없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임제는 길 오른쪽에서 보는 사람은 가죽신을, 왼쪽에서 보는 사람은 짚신을 신었다고 할 것이라고 말한다. 같은 사람의 신발도 **보는 방향에 따라 다르게 인식**된다고 여긴 것이므로, 사람들의 주관적 관점이 대상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해에 부합한다.

② O: 집은 손님들의 무릎이 부딪칠 만큼 좁고 누추하지만, 주인은 그곳에서 편안하게 독서와 구도에 열중한다. 이는 집의 객관적인 크기나 상태가 주인의 만족을 그대로 결정하지 않으며, 주인이 **자신의 태도와 가치에 따라 공간을 받아들임**을 보여 준다. 뒤이어 생각이 바뀌면 공간을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말도 제시된다.

③ O: 금붕어는 우리가 직선 운동으로 보는 것을 곡선 운동으로 관찰하지만, 그 관찰을 바탕으로 나름의 과학 법칙을 세울 수 있다. (다)는 그 법칙이 **항상 성립하고 미래 운동을 예측**할 수 있다면, 우리의 법칙보다 복잡하더라도 타당한 실재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왜곡된 기준 틀이라는 이유만으로 과학 법칙의 수립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

④ X: (가)는 보는 방향에 따른 인식의 차이를, (나)는 생각과 태도에 따른 공간 수용의 차이를 보여 준다. (다)는 서로 다른 기준 틀에서 구성한 이론도 예측 능력을 갖추면 타당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세 글의 공통점은 **관점과 인식의 틀에 따른 인식의 차이**를 보여 준다는 것이며, 주관적 인식이 논리적으로 모순됨을 모두 분명히 밝힌다는 것이 아니다.

NoteBase

문 20. <보기>의 시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돌담 기대 친구 손 붙들고
토한 뒤 눈물 닦고 코 풀고 나서
우러른 잿빛 하늘
무화과 한 그루가 그마저 가려섰다.

이봐
내겐 꽃 시절이 없었어
꽃 없이 바로 열매 맺는 게
그게 무화과 아닌가
어떤가
친구는 손 뽑아 등 다스려 주며
이것 봐
열매 속에서 속꽃 피는 게
그게 무화과 아닌가
어떤가

일어나 둘이서 검은 개굴창가 따라
비틀거리며 걷는다
검은 도둑괭이 하나가 날쌔게
개굴창을 가로지른다.

① 잿빛 하늘은 화자가 처한 현실의 반어적 형상이다.
② 화자는 굳은 의지로 전망 부재의 현실에 저항하고 있다.
③ 속으로 꽃이 핀다는 것은 화자가 내면화된 가치를 지녔음을 뜻한다.
④ 도둑괭이는 현실의 부정에 적극 맞서야 함을 일깨우는 존재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친구는 '꽃 시절이 없었어'라는 화자의 탄식에 '열매 속에서 속꽃 피는 게' 무화과라고 응답한다. 이는 겉으로 화려하게 드러나지 않아도 화자에게 **내면의 가치가 있음**을 일깨우는 말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잿빛 하늘'은 어둡고 답답한 분위기를 통해 화자가 처한 암울한 현실과 심정을 드러낸다. 반어는 표현된 말과 실제 뜻이 반대되는 방식인데, 여기서는 잿빛의 어두운 이미지가 현실의 암울함과 일치한다. 따라서 **반어적 형상이 아니라 암울한 현실을 드러내는 이미지**이다.

② X: 화자는 '내겐 꽃 시절이 없었어'라며 자신의 삶에 아름답고 빛나는 시절이 없었다고 탄식한다. 눈물을 닦고 친구에게 기대며 비틀거리는 모습에서도 **좌절감과 무력감**이 드러난다. 이를 현실에 굳은 의지로 저항하는 태도로 볼 근거는 없다.

③ O: 화자는 무화과가 '꽃 없이 바로 열매 맺는' 나무라고 여기며 자신의 삶에도 꽃다운 시절이 없었다고 한탄한다. 이에 친구는 무화과가 '열매 속에서 속꽃 피는' 나무라고 말해 관점을 바꾸어 준다. 이 말은 외부로 드러나는 화려함이 없더라도 화자가 **자기 안에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뜻하며, 화자의 삶을 긍정하고 위로하는 의미를 갖는다.

④ X: 마지막 연에서 도둑괭이는 '날쌔게' 개굴창을 가로지른다. 이 움직임은 화자와 친구가 '비틀거리며' 걷는 모습과 대비되어 **그들의 무기력한 모습을 부각**한다. 도둑괭이가 현실의 부정에 적극 맞서라고 일깨운다는 해석은 시에 나타난 행동이나 화자의 반응으로 뒷받침되지 않는다.

NoteBase